



한국 공영방송 TV 뉴스의 형식적, 내용적 도식에 따른 심층성 분석 KBS <9시뉴스>와 BBC <10시뉴스>의 비교를 중심으로

오해정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박사과정, MBC 기자

최지향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조교수

Effects of Thematic and Formal Formats of Public Broadcasting News on the Depth of News

A Comparison between <KBS News 9> and <BBC News at 10>

Hae Jung Oh*

(Doctoral Student, Division of Communication-Media, Ewha Womans University/ Reporter,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Jihyang Choi**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Communication-Media, Ewha Woma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news formats and the extent of in-depth reporting, positing that one of the key reasons behind the decrease in public broadcasting news viewership is the routine-based production of similar types of news. For this, researchers compared the main news programs of KBS and BBC, the representative public service broadcasters of South Korea and the UK. Findings show that the Korean-style formal format is still prevalent in Korean news—a 127-second-long report with two sound-bites, which tends to be pre-recorded (91%). In terms of the thematic format, news reports were disproportionately focused on social affairs (41.9%) and political (32%) news. Researchers also found that, in terms of in-depth reporting, KBS news is far behind BBC's. Among the three dimensions of in-depth reporting (objectivity, diversity, and professionalism), KBS news showed a lower level of objectivity and professionalism. Ultimately, researchers tested whether the Korean-style news format has meaningful effects on the level of in-depth reporting, and results show that Korean-style news tends to be event-driven, with a low analytic approach. In sum, researchers conclude that the Korean-style news format is likely to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extent of in-depth reporting, particularly in practicing interpretive and analytic reporting. Thus, we suggest that Korean public broadcasters need to change the existing practice of news production, in order to reconnect with news consumers. Further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words: public broadcasting, news format, broadcasting news, in-depth reporting, routinized-news making

* rosy217@naver.com, first author

** choi20@ewha.ac.kr, corresponding author

1. 문제제기

지상파 방송뉴스는 최근 시청자가 줄어드는 위기를 맞고 있다.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KBS의 경우, 2012년 8월 평균 30%가 넘는 <9시뉴스>의 시청률이 2018년 상반기 13%로 하락했다. MBC 상황은 더 심각해 메인뉴스인 9시 <뉴스데스크> 시청률은 2017년 5%대에서 2018년 3%대로 떨어졌고 급기야 지난 2018년 8월 9일에는 시청률 1.9%로 지상파 방송뉴스로는 처음으로 1%대의 시청률을 기록했다(박성익, 2018). 공영방송의 영향력 감소는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서구의 공영방송 역시 공영방송 독과점이 사라지고 다채널 방송이 본격화되면서 시청자가 줄어들고 예산이 감소하는 위기를 겪고 있다(Collins, Finn, McFadyen, & Hoskins, 2001; Goddard, 2017; Rowland & Tracey, 1990). 서구 공영방송의 영향력 감소 이유로는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 편성과 방송국 운영의 낮은 효율성이 꼽히고 있다(Collins et al., 2001).

국내 공영방송 뉴스가 영향력을 상실한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첫째로 정권에 휘둘리며(정필모, 2012) 공정성 훼손 시비에 휘말려서라는 이유이다. 한국 공영방송은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정치 현실을 전달, 해설하는 차원을 넘어 '당파적'으로 정치적 논쟁을 구성하는 데 적극 참여하며(이준웅, 2005) 신뢰도가 떨어졌다. 또한 거듭되는 파업으로 세월호 등 거대한 국가적 이슈가 있을 때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JTBC를 비롯한 종편뉴스에 시청자를 빼앗겼다. 언론인과 법조인, 정치인 등 10개 분야 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로 종합편성채널인 JTBC가 뽑힌(50.4%) 반면 KBS는 27.7%로 2위를, MBC는 5위를 기록한 결과는 현재 공영방송의 위상을 보여준다(윤수현, 2018).

두 번째 이유로 거론되는 것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뉴스 창구 다원화다. 기존에 지상파 방송뉴스를 집중적으로 시청하던 사람들의 관심과 호기심이 인터넷의 발달로 등장한 다양한 뉴스 매체와 콘텐츠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뉴스의 소비가 기존에 신문과 방송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스마트폰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최영재·남재일, 2013).

이상의 두가지 이유가 정치적 상황과 변화된 미디어 환경이라는 외부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공영방송의 뉴스 제작 관행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 역시 존재한다. 주변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몰아닥치고 있는데도 국내 공영방송이 이전의 제작 관행을 고수한 채로 유사한 방송뉴스만을 반복 생산, 제공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는다는 것이다(최진봉·이미선, 2017). 매체 간 경쟁이 심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방송뉴스는 뉴스 길

이를 비롯해 뉴스 주제의 구성과 보도 양식에 있어 변화를 피하지 않고 이른바 ‘한국형 방송 뉴스 도식’으로 불리는 기존의 제작 방식을 따르고 있다(강명현, 2016). 공영방송은 다른 상업방송과는 다른 차별성을 떨 필요가 있고 시청률보다는 상업방송이 추구하지 못하는 품질 높은 프로그램을 방송할 의무가 있는데도(Bardoel & Lowe, 2007; Goddard, 2017; Jakubowicz, 2003), 국내 공영방송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제작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는 공영방송의 영향력이 줄어든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사전제작 기자 리포트 중심의, 짧고, 정치뉴스와 사회뉴스에 집중된 ‘한국형 방송뉴스의 도식’을 고수하는 데 있다고 보고 1) 선행연구에서 지적해 온 한국형 뉴스의 도식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지 알아본 후, 2) 이러한 고정된 형식이 뉴스 심층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분석했다. 선행연구들은 보도의 피상성은 공영방송이 극복해야 할 당면 과제이며(박인규, 2007), 공영방송 뉴스의 형식적 도식은 특히 뉴스 심층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이준웅·황유리, 2004). 공영방송은 심층보도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를 설정하고 시민들의 의제 참여를 이끌어 낼 사회적 책무를 갖고 있는데(박인규, 2007) 뉴스의 정형화된 형식이 심층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뉴스 도식에 관한 기존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1분 30초, 9문장으로 구성된 방송기사의 형식적 도식과 정치, 사회뉴스에 편중된 내용적 도식의 현황 분석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왔다(예: 남재일, 2013; 이준웅·황유리, 2004). 이러한 형식적, 내용적 도식이 뉴스의 심층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뉴스의 내용적, 형식적 도식과 심층성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서구의 공영방송인 영국 BBC의 〈10시뉴스〉와 국내 공영방송 KBS 〈9시뉴스〉의 보도 행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 공영방송에 존재하는 형식적, 내용적 도식을 유형화했다. 또한 뉴스 ‘심층성’을 재이론화해, 이를 객관성, 다양성, 전문성 등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뤄진 다층적인 개념으로 정의한 후 BBC와 KBS 보도의 심층성을 비교했다. 나아가 뉴스 도식화와 심층성의 관계를 살펴 한국형 뉴스 도식과 심층 보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영방송이 심층성 있는 보도로 공론장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실천 방안을 제언하고자 했다.

2.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

1) 뉴스도식과 한국형 뉴스 도식

뉴스는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담론으로 볼 수 있다(van Dijk, 1988a, 1988b).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뉴스는 각 뉴스 생산조직의 특수성, 뉴스 제작 관행과 같은 사회적 특성에 의해 결정지어진다. 뉴스는 특정 사회의 뉴스조직에서 일상적으로 제작되는 담론으로서 일종의 정해진 구성적 패턴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기자들은 매일 이처럼 일종의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담론인 뉴스를 마감 시간에 맞춰 제작한다. 뉴스 제작에 있어 관행(routine)은 기자들이 취재를 통해 수집한 수많은 정보를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하게 하는 반복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방법이다. 특히 매일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를 다루기 쉬운 언론사의 속성상 마감 시간에 맞춰 뉴스를 생산해내기 위해 취재 관행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Fishman, 1980; Gans, 1979; Tuchman, 1978). 이러한 뉴스 제작 관행은 기자라는 직업을 일종의 특수한 전문직종으로 만들어주기도 하지만(Tuchman, 1978) 기자들로 하여금 기존의 제작 방식에 대해 의심이나 반박 없는 태도를 가지게 하기도 한다(Hallin, 1992).

텔레비전 뉴스룸을 참여 관찰한 밴즈, 맥코클, 그리고 베이드(Bantz, McCorkle & Bade, 1980)는 TV 보도국을 공장에 비유했다. 편집회의에서 주제를 정하고 기자들에게 업무를 배분하면, 기자들이 취재하고 구성해서 방송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마치 공장의 조립 라인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관행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뉴스 제작이 공장에서 기성품을 만들어내듯이 이뤄지기 때문에 융통성이 떨어지고 개인적인 관여가 줄면서 품질이 떨어지는 뉴스 생산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밴즈 등은 지적했다(Bantz et al., 1980). 터크만(Tuchman, 1978)은 이러한 뉴스 취재 관행을 '작업의 리듬'에 비유하며 최대한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이러한 리듬이 필요하고 언론사는 조직 차원에서 뉴스 제작 업무를 일상화, 유형화, 정형화시킨다고 밝혔다.

한국 방송뉴스에도 이 같은 일상화, 유형화된 도식(Bantz et al., 1980; Fishman, 1980; Gans, 1979; Tuchman, 1978; van Dijk, 1988a, 1988b)이 존재한다고 선행연구들은 밝히고 있다(강명현, 2016; 이준웅·황유리, 2004; 최영재·남재일, 2013; 한수연·윤석민, 2016). 제한된 인력과 마감 시간이라는 제약 요소 아래 효율적으로 뉴스를 생산해내기 위한 한국형 뉴스 도식은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도 해외방송과는 다른 차이점을 나타냈다(이준웅·황유리, 2004; 최영재·남재일, 2013).

한국형 방송뉴스 도식에 대해 처음 개념을 제시한 연구자는 이준웅과 황유리(2004)다. 연

구진은 한국 방송사의 뉴스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뉴스의 형식적이고 내용적인 특성이 일정한 양식으로 구조화된 것을 ‘한국형 뉴스 도식’이라고 명명했다. 한국 방송뉴스는 구성적 특징과 뉴스의 내용적 차원이 긴밀하게 연결돼 하나의 도식적인 특성을 구성하게 되며, 구성적 특징인 형식적 도식이 내용적 차원인 내용적 도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한국형 방송뉴스의 형식적 도식으로 사전제작 형태의 기자 리포트 비중이 높고, 리포트 길이가 해외뉴스보다 짧으며, 인터뷰 개수도 적은 특징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강명현, 2016; 반현·홍원식, 2009; 최영재·남재일, 2013; 한수연·윤석민, 2016). 2003년 분석(이준웅·황유리, 2004)에서는 리포트 1개당 길이가 77초로 영국 BBC(120초), 일본 NHK(157초)보다 더 짧았던 KBS 리포트는 2013년 연구에서는 리포트 길이가 84초로 다소 늘어났지만 여전히 영국 BBC(144초)보다 더 짧은 것으로 분석됐다(최영재·남재일, 2013). 종합편성 채널 출범 이후의 분석은 엇갈린다. 종편 출범 이후 공영방송 뉴스 리포트 길이가 10초 가량 증가해 KBS뉴스가 형식적 도식 탈피를 꾀하고 있다는 연구 역시 존재하지만(한수연·윤석민, 2016)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영방송 뉴스의 리포트는 81초 길이를 유지하고 있다(강명현, 2016).

한국 방송뉴스의 또 다른 형식적 도식은 이슈와 기사의 심층성 정도에 차이가 없이 같은 길이의 리포트와 사운드바이트가 방송된다는 점이다. 외국의 뉴스들이 기사 중요도에 따라 길이에 변화를 주며 일종의 ‘작업의 리듬(Tuchman, 1978)’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한국 방송 뉴스는 과도한 형식의 정형성을 따르고 있다. 2013년 분석(최영재·남재일, 2013)에 따르면 한국의 텔레비전 뉴스는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 뉴스 프로그램에 방송되는 개별 리포트 길이와 사운드바이트 길이에 차이가 없이 평균 84초의 리포트에 10초 내외의 사운드바이트가 방송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한국 방송뉴스가 전형적인 형식적 도식을 따르는 이유에 대해 뉴스 제작자들은 짧은 리포트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이 시청률 상승을 위해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준웅·황유리, 2004). 하지만 짧은 기자리포트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긴 기자 출연이나 기자 생중계 보도에서 시청률이 오히려 더 상승한다는 점을 입증한 연구 역시 존재하며(최영재, 2009) 이같은 형식적 도식은 결국 지상파 방송사가 과점 환경에서 변화를 꾀하지 않고 관성적으로 제작자 위주로 뉴스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비판 역시 제기됐다(반현·홍원식, 2009).

언론사의 유형화된 작업 방식은 뉴스 형식은 물론이고 주제 등 내용적인 부분의 정형화된 틀을 만든다(Tuchman, 1978). 이준웅과 황유리(2004)는 터크만의 이같은 논리를 인용하며 한국형 방송뉴스에도 역시 내용적 도식이 있음을 밝혔다. 연구진이 뽑은 한국형 방송뉴스의 첫 번째 내용적 도식은 정치뉴스와 범죄뉴스에 집중되는 뉴스 주제의 편재성과 이로 인한 부정적 뉴

스가치의 강조이다. 이후 이뤄진 분석에서도 사회뉴스와 정치뉴스 비중이 높은 한국형 방송뉴스의 내용적 도식은 계속해서 관찰됐다(강명현, 2016). 2004년 분석에서는 한국 방송뉴스에서 정치 뉴스가 23%로 가장 높고 뒤이어 범죄/경찰(14%)순이었던 반면 2016년 분석에서는 사회(범죄) 관련 뉴스가 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BBC는 국제뉴스(18%)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내뉴스와 차별성을 보였다(이준웅·황유리, 2004).

두 번째로 발견된 한국형 방송뉴스의 내용적 도식은 보도자료와 같은 수동적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이준웅·황유리, 2004). 한국 방송뉴스는 보도자료나 기자회견에 대한 의존이 BBC에 비해 높았다. 반면 기자가 인터뷰나 자료조사 등 능동적 채널을 통해 보도를 한 경우는 BBC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이준웅·황유리, 2004). 이처럼 오랜 기간 비슷한 형식의 제작 관행이 반복됨으로써 생기는 뉴스의 내용적 도식은 뉴스의 주제와 뉴스에 등장하는 취재원, 그리고 뉴스의 표현형식까지 일정한 틀에 갇히게 한다고 선행연구는 지적하고 있다(최영재·남재일, 2013).

Table 1. Thematic and Formal Scheme of Korean Public Broadcasting News

		특징
형식적 도식	아이템별 보도시간	평균 80~100초
	기사제시방식	앵카멘트+기자 사전제작 리포트
	사운드바이트 개수·길이	2개, 평균 8~10초
내용적 도식	뉴스 주제	사회·정치
	정보채널	보도자료·기자회견

Note. This table is based on Ban & Hong(2009), Choi & Nam(2013), Han & Yoon(2016), Kang(2016), Rhee & Hwang(2004).

선행연구들은 한국형 방송뉴스에서 해외뉴스와는 다른 형식적 도식(짧은 리포트 길이, 사운드 바이트 개수, 기사제시방식)이 발견되며 이러한 형식적 도식은 내용적 도식(뉴스 주제)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해외뉴스와는 다른 ‘한국형 방송뉴스 도식’을 형성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따라서 영국 공영방송 BBC와는 차별적으로 관찰되는 KBS만의 한국형 방송뉴스 도식은 무엇인지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문제1: KBS뉴스에는 BBC뉴스와는 다른 어떠한 형식적·내용적 도식이 존재하는가?

2) 도식화와 심층성의 관계

리포트 중심의 형식적 도식과, 보도자료 의존도가 높고 사회와 정치뉴스 비중이 큰 내용적 도식이 여전히 한국 방송뉴스에서 지배적이라면 이 같은 특징이 실제로 뉴스 심층성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관계를 알아보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은 뉴스의 '심층성'이 무엇이며, 어떤 조작적 정의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된 접근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 상황에서 기존 선행연구가 기사 심층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했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이들 지표들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뉴스 가치와 연결되는지 알아보는 방식으로 심층성의 개념화를 시도하고, 이를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심층성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관점은 뉴스 심층성이 정보의 깊이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Brooks, Kennedy, Moen, & Rnly, 2002; Rich, 2007; Schudson, 1995). 한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바탕해 좋은 저널리즘의 다양한 하위 요인들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한 남재일과 이강형(2017)은 심층성을 “중요 뉴스에 대한 해설과 비평을 제공하는 것(97쪽)”으로 정의했다. 스퍼크 등(Spurk, Lopata, & Keel, 2010)은 기사에 과정과 결과 뿐 아니라 원인과 배경, 역사, 결과 등이 포함돼 있어야 사건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콘텐츠의 정교함이 수용자의 학습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Fleming & Thorson, 2008).

국내 언론의 경우 이 같은 정보의 깊이가 얕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재영과 이나연(2018)이 기사의 분석적 특징(analytical quality)을 측정한 결과 국내 일간지 가운데 원인과 과정, 결과, 그리고 전망까지 모두 아우르는 정보를 담은 기사는 4.5%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뉴욕타임스는 네 가지 정보를 모두 담은 경우가 19%, 영국의 더 타임스는 1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돼 한국 신문뉴스의 분석력이 해외신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기사가 단순히 발생한 사건 중심의 이벤트성 기사(event-centered coverage)인지 분석 중심 보도(analysis-centered coverage)인지에 따라 기사의 분석력을 나눌 수 있다는 연구 역시 존재한다(박재영·안수찬·박성호, 2014; Barnhurst & Mutz, 1997; Schudson, 1998).

다음으로는 취재원 분석을 통해 기사 심층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관점이 있다. 매스미디어는 사회와 관련된 뉴스의 제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정보는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의견과 구분되는 팩트(fact)에 입각해야 하는데 이러한 팩트를 얻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은 다양한 취재원을 기자가 발굴해 취재하는 것이다(Simon, Fico, & Lacy, 1989). 미국 민간 연구 단체 '우수 저널리즘을 위한 프로젝트(PEJ: 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가 개발한 '보도지수(reporting index)'가 대표적이다. 이 보도지수는 '투명취재원 수,' '복합관점 수준,' '이해당사자 수' 등 3가지 요소를 심층보도의 중점 요소로 보고 있다. 지표가 세 가지로 분류되기는 했지만 세

지표 모두 취재원을 중심으로 측정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PEJ는 4명 이상의 투명 취재원이 등장하고 복합관점과 함께 4개 이상의 이해당사자를 갖춘 기사를 심층보도의 기준으로 삼았다(박재영, 2006).

먼저 다양한 취재원, 특히 투명취재원을 기사에 사용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로 한 뉴스 심층성을 증가시킨다는 분석이다(이건호, 2008).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범람하면서 객관성을 내포한 정보의 심층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진호(2008)는 객관성에 기초한 사실 전달의 저널리즘에 해설, 주장의 방법론들이 더해져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가 이뤄질 때 진실 보도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결국 기사에서 다양한 취재원을 활용해야 객관성을 담보한 기사의 심층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 언론에 등장하는 취재원 수는 해외보다 적으며(박재영·이나연, 2018; 이진호·정완규, 2009) 기사에 취재원이 적게 등장하는 패턴은 방송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박성호·윤영민, 2016). 국내 주요 일간지 1면 기사의 취재원 수를 해외 언론과 비교한 박재영과 이나연(2018)은 국내 일간지 1면 기사에 포함된 취재원 수가 평균 3.33개로 미국 뉴욕타임스의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방송을 대상으로 심층성에 대해 연구한 박성호와 윤영민(2016)은 지상과 방송 3사 모두 방송 법조기사에 등장한 실명 취재원이 리포트 1개당 2개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기사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투명 취재원 활용 역시 해외 언론에 비해 저조해 미국과 영국, 일본, 한국 신문 1면의 투명취재원 수를 비교한 최근 연구에서는(박재영·이나연, 2018) 국내 일간지 기사 1개에 평균 2.6개의 투명취재원이 등장해 뉴욕타임스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다. 반면 투명취재원이 1개 이하인 기사의 비율은 국내 일간지가 24.3%로 연구대상 4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아 국내 언론이 해외 언론보다 투명취재원 활용 비율이 낮았다.

다음으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기사를 심층적인 기사로 보는 관점이 있다(PEJ, 2008). 기자가 충분한 취재를 통해 독자나 시청자가 가치판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을 제공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기사 심층성의 지표로 한미신문기사에 나타난 복합관점의 비율을 비교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박재영·이나연, 2018; 이진호·정완규, 2009) 국내기사의 경우 복합관점보다 단일관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방송 법조기사의 심층성을 분석한 연구(박성호·윤영민, 2016)에서도 '완전히 단일'한 관점이 5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 신문과 방송 모두 기사에서 '단일관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관점'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기사에 등장하는 이해당사자의 수를 측정한 선

행연구도 있다(박재영·안수찬·박성호, 2014). 국내 신문의 대통령 선거보도 기사품질을 분석한 박재영과 안수찬, 박성호(2014)는 이해당사자 수가 분석 시작 시점인 1992년에 가장 많았고 2012년에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패턴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한겨레 모두에서 발견돼 기사 1개당 이해당사자 수가 3.4개~3.5개였다고 밝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심층성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들을 산발적으로 사용했는데, 이들 지표들을 뉴스 가치라는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심층성을 구성하는 뉴스 가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뉴스 가치는 뉴스 선택(news selection), 뉴스 평가(news evaluation), 탐사보도와 관련된 뉴스 가치(investigative reporting), 그리고 민주사회를 구성하며 유지하는 다양성과 전문성으로 분류된다(심재철, 2003). 선행연구에서 심층성을 재는데 사용한 다양한 지표들을 뉴스 가치와 연결시켜 볼 때 취재원 수와 투명취재원 활용은 뉴스 평가(news evaluation) 가치 중 객관성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해당사자 수와 관점 유형은 민주사회 뉴스가치의 다양성, 분석력과 기사유형은 민주사회 뉴스가치의 전문성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뉴스 가치의 객관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TUFF'원칙이 널리 사용되는데(Merrill, 1997), 이는 취재보도 기준으로 진실성(truthfulness)과 불편부당성(unbiasedness), 공정성(fairness), 완전성(fullness) 등 네 가지 뉴스가치를 선정한 것이다. 이 가운데 뉴스 객관성의 사실성은 메릴(Merrill, 1997)이 TUFF원칙 가운데 가장 먼저 제시한 진실성(truthfulness)에 대한 것으로 뉴스의 사실성을 추구하기 위해 기사는 언제든지 정확하게 보도해야 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각각 다른 취재원 세 명 이상에게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심재철, 2003). 맥케일 역시 미디어가 믿을만한 취재원(source)에 의존해 지식(knowledge)을 전달해야 진실에 가까운 보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현안에 대해 잘 알고(informed) 비판적인(critical) 유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미디어가 질이 높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뉴스 정보의 객관성(objectivity)이라는 것이다. 특히 객관성의 사실성(factuality)은 다양한 취재원에 의해 사실이 확인돼 정보의 정확성과 완결성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고 맥케일은 주장하고 있다(McQuail, 2010). 취재원의 수만큼이나 뉴스 객관성을 측정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이 취재원의 투명성이다(이나연, 2018). 투명취재원 적시는 독자가 정보의 타당성(validity)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Kovach & Rosenstil, 2007)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취재과정에서의 투명성으로 정보의 객관성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의 투명성 연구는 주로 실명취재원과 익명취재원의 사용빈도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박재영·이나연, 2018; 이진호, 2008; 이나연, 2018), 기사에서의

투명취재원 이용 여부는 한국 언론이 객관성을 어느 수준으로 추구하는지를 판단하는 일종의 기준이 될 수 있다(이나연, 2018). 따라서 이처럼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 특히 투명취재원 수로 객관성에 기초한 심층성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는 최근 연구 경향을 토대로(이건호, 2008; 이나연, 2018) 뉴스 가치의 객관성은 심층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민주사회 뉴스가치로 다양성과 전문성이 주목받고 있다(심재철, 2003). 민주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선 구성원들이 사회 갈등을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이나 아이디어를 충분히 보도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Voakes, Kapfer, Kurpius, & Chern, 1996) 관점은 일방적(one-sided)이기보다는 양방적(two-sided)일 필요가 있다. 또한 어려운 개념이나 복잡한 사회현상을 독자나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도하는 뉴스 전문성이 최근 더 강조되고 있다(심재철, 2003). 선행연구에서 심층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이해당사자 수와 관점 유형은 민주사회에서 구성원들에게 갈등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양성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뉴스의 분석력과 취재방식에 따라 나는 기사 유형은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뉴스의 전문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Figure 1〉은 이상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리한 심층성에 대한 개념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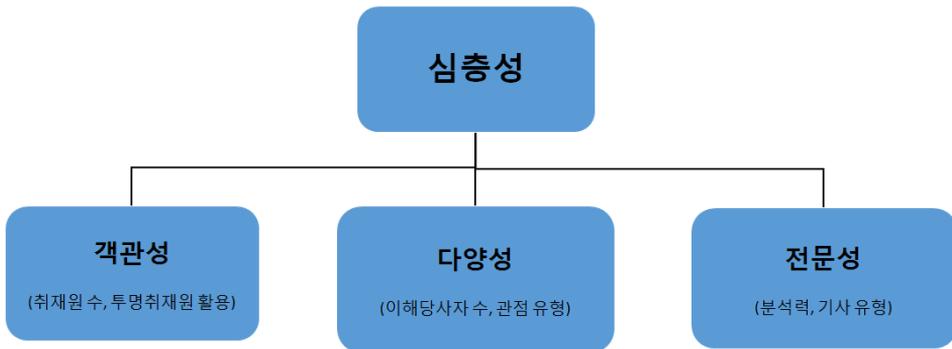


Figure 1. Structure of the depth of news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KBS 〈9시뉴스〉와 BBC 〈10시뉴스〉의 심층성을 분석하고자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2: KBS뉴스와 BBC뉴스는 심층성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국방송뉴스의 심층성이 해외방송뉴스보다 낮은 것은 한국뉴스가 정형화된 틀을 고수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빈번하게 있어왔다. 특히 뉴스의 분석력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뉴스 도식화가 지목되어 왔다. 한국, 영국, 미국, 일본 등 4개 국가의 방송뉴스를 비교 연구한 이준웅과 황유리(2004)는 한국 뉴스 가운데 단순히 과정과 결과만을 제시하는 분석력 떨어지는 기사의 비율이 52%로 일본(59.6%)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기자가 수동적으로 뉴스를 취재하는 비율 역시 한국은 41.1%로 영국(33.9%)과 큰 차이가 났다. 연구자들은 이처럼 심층성이 떨어지고 발표기사에 의존하는 한국뉴스의 특징이 짧은 뉴스만 연속적으로 나열하는 한국형 방송뉴스의 도식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뉴스 제작자들은 1분 20초 정도의 개별 리포트 시간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잡아두는 최적의 시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심층성이 떨어지는 뉴스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이준웅·황유리, 2004).

하지만 선행연구(이준웅·황유리, 2004)에서는 한국형 뉴스 도식이 방송뉴스 심층성을 낮추는 요인일 것이라는 가능성만 제기했을 뿐 데이터에 바탕해 한국형 방송뉴스 도식과 심층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입증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연구진은 한국방송뉴스의 도식이 뉴스의 심층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3: KBS 뉴스의 형식적, 내용적 도식은 뉴스의 심층성(객관성, 다양성, 전문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3. 연구방법

1) 분석 매체 및 표집 방법

국내 공영방송 뉴스를 대표해 KBS <9시뉴스>를 선정했고 영국에서도 역시 공영방송인 BBC의 <10시뉴스>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두 뉴스 프로그램 모두 공영방송 체제하에 방송되는 각 국가의 대표적인 뉴스 프로그램이다. 분석방법은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대상은 2018년 1년 동안의 뉴스 가운데 2주치의 방송뉴스를 주 구성 표집 방법(Constructed Week Sampling)을 통해 모았다. BBC는 주말에는 뉴스가 없어 모두 10일치의 방송뉴스가 표집됐고 KBS는 14일

치의 방송뉴스가 표집됐다¹⁾. 리포트 개수는 KBS 253개, BBC 75개였다.

2) 분석 대상

개별 기사 아이템, 즉 기자리포트 1개가 분석 단위이다. 하지만 KBS의 앵커리포트와 같이 여러 개의 리포트가 같은 주제로 하나로 묶여서 인터넷상에 업로드된 경우에는 1개로 코딩했다. BBC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영상을 다운로드받아 분석했고 같은 기준을 적용해 분석했다. 헤드라인과 스포츠뉴스, 날씨예보의 경우 연구목적과 상관없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스포츠 뉴스타이틀 전, 종합뉴스에 포함된 스포츠뉴스와 날씨뉴스의 경우에는 시의성이나 뉴스 가치를 포함해 전진 배치된 점을 고려해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3) 측정 항목의 조작적 정의

(1) 뉴스의 도식

① 뉴스 아이템 수: 분석대상 날짜에 KBS <뉴스데스크>와 BBC <10시뉴스>에서 방송된 기자 리포트 개수를 측정했다. 영상뉴스나 단신기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② 아이템별 보도시간: 리포트가 보도되는 길이로 초 단위로 개별 기사 길이를 측정했다. 기사별 VOD 상에 표시되는 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통일했다. 뉴스 시작과 동시에 앵커가 인사를 하는 멘트를 포함해 앵커멘트를 포함한 리포트 시간을 측정단위로 삼았다.

③ 사운드바이트 건수: 사운드바이트는 편집돼 뉴스에 들어간 취재원의 육성인터뷰를 의미하며 (이재경, 2003) 방송의 효과음이 아닌 스크립트 상 '인터뷰,' '녹취,' 또는 이름과 소속이 제시된 경우의 빈도를 측정했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중앙TV의 아나운서 육성처럼 방송화면을 그대로 리포트에 인용한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사운드바이트를 뉴스의 형식적 도식을 재는 지표로 삼았기 때문에 동일 화자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더라도 중복해서 썼으며 질문과 답으로 이어진 경우는 한 개의 사운드바이트로 간주했다.

④ 기사 제시 방식: 방송뉴스 기사 제시 방식은 뉴스를 구성하는 외형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앵커와 기자의 등장 여부, 인터뷰 포함 여부, 현장 중계 등을 어떻게 배치했는지를 의미한다(이

1) 1월 15일, 2월 6일, 3월 7일, 4월 12일, 5월 31일, 6월 16일, 7월 8일, 7월 30일, 8월 14일, 9월 19일, 10월 25일, 11월 9일, 12월 1일, 12월 16일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주말인 6월 16일과 7월 8일, 12월 1일과 12월 16일은 BBC가 메인뉴스를 방송하지 않아 KBS 뉴스만이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준웅·황유리, 2004). 이 연구에서 기사 제시 방식의 범주는 선행연구(이준웅·황유리, 2004; 한수연·윤석민, 2016; 한진만·설진아, 2001)를 변용해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Table 2. Format of News Reports

기사제시 방식	
(1)	앵커+기자 사전제작 리포트
(2)	앵커+기자 현장 생중계 또는 스튜디오 출연
(3)	앵커+기자 사전제작 리포트+기자출연 또는 기자 생중계 (순서 무관, 2개 이상 리포트 포함)
(4)	기타

⑤ 뉴스 주제: 방송사가 보도하는 다양한 이슈를 말한다(강명현, 2016). 이 연구에서는 KBS 홈페이지의 주제 분류를 일부 수정해 다음과 같이 6개로 나눴다. BBC뉴스를 가코딩한 결과 KBS의 주제 분류를 따라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Table 3. Topic of News Reports

1	정치, 청와대, 영국 의회, 통일
2	경제, 산업, IT, 과학, 노동
3	교육, 환경, 보건복지, 경찰, 검찰, 고발
4	문화, 예술, 스포츠
5	국제
6	기타

(2) 뉴스 심층성

심층성은 앞서 밝힌 대로 객관성, 다양성, 전문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측정했다.

1) 뉴스 객관성

① 취재원, 투명취재원, 익명취재원 수: 취재원은 기자가 기사를 위해 접촉한 대상이나 정보를 얻는 통로를 말하며(Mencher, 1991) 인물과 자료(박성희, 2004; 박재영, 2006) 및 최근에는 온라인 출처까지 취재원에 포함시킨다(Rich, 2006). 이 연구에서는 기사 심층성의 사실성을 재는 척도로 전체 취재원 수와 투명취재원수, 익명취재원 수를 분석했으며 리포트 1건당 취재원 수를 평균 내 비교했다. 먼저 전체 취재원에는 인물과 단체, 문서 등 사물까지 포함된다. 같은 취재원이 여러 번 중복해서 등장하는 경우는 한 번으로 셤다. 기본적으로 기사에서의 표현과 사운드

바이트의 경우 자막을 일일이 따져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예컨대 “통일부는~”이라고 나온 뒤 기사 뒷부분에서 “정부는~”이라는 문장이 나와 행정부인 통일부를 지칭하는 다른 표현임이 명확할 때는 같은 대상으로 코딩했다. 취재원은 기사에서 “~는 ~라고 말했다”라고 표현되거나 “00에 따르면” 등의 표현으로 명시적으로 정보제공자임이 드러나는 경우를 뜻한다. 이 연구에서는 인물취재원에만 한정해 투명취재원과 익명취재원으로 분류하였다. 취재원의 직함과 실명이 등장할 경우 기사에서의 사실성을 더해주기 때문에 심층성의 객관성을 재는 척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서이다. 선행연구(이건호·정완규, 2009)를 토대로 실명과 소속이 명확한 경우, 또한 성명이 기재되어있지 않더라도 직함이 구체적이어서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는 투명취재원으로 여겼으며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익명취재원으로 간주했다. 투명취재원과 익명취재원 수 역시 리포트 1건당 등장한 숫자를 평균을 내서 비교했으며 중복된 경우는 한 번으로 셸다.

2) 뉴스 다양성

① 갈등 기사 여부: 관점유형과 이해당사자 수는 갈등적 사안을 다루는 기사에서만 등장하기 때문에 기사에서의 갈등 여부부터 코딩했다.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사는 필연적으로 피의자와 경찰 또는 검찰이라는 이해당사자가 존재하지만 기사의 특성상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내용을 대부분 보도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이 나올 수 없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KBS는 갈등성 있는 기사가 전체 기사 253개 가운데 33개, BBC는 75개 리포트 가운데 18개인 것으로 분석됐다.

② 관점유형: 관점은 기사에 등장하는 집합적 견해(이건호·정완규, 2009)로 한 기사에서 3명의 취재원이 하나의 견해를 나타내고 다른 3명의 취재원이 또 다른 시각을 보인다면 취재원 수는 6명이지만 관점은 2개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이건호·정완규, 2009)의 분석틀을 차용해 단일관점(기사 주제와 관련 한 가지 견해만 제시한 경우)과 대체로 단일 관점(하나의 견해가 기사의 3분의 2 이상을 구성하며 다른 견해가 일시적으로 언급된 경우), 그리고 나머지는 복합관점으로 코딩했으며 문장 수로 관점 정도를 계산했다.

③ 이해당사자 수: 박재영, 이완수, 그리고 박성호(2016)의 연구를 참조하여 이해당사자는 이해관계가 상이한 주체로 정의한다. 예컨대 여당 관계자 3명이 등장했다더라도 이들의 견해가 동일하다면 이해당사자는 하나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기사에서 명확히 인용 주체를 주어로 적시하는 직접 인용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입장이 기사에 반영되면 이해당사자로 간주했다.

3) 뉴스 전문성

① 분석력: 선행연구에서는 기사가 1) 과정과 결과만 포함했는지, 2) 원인, 과정, 결과를 포함했는지, 3) 과정, 결과, 전망을 포함했는지, 4) 원인과 과정, 결과, 전망을 모두 포함했는지를 기준으로 심층성에 대해 분석했다(박재영·이나연, 2018). 이 연구에서는 방송기사 특성상 문장이 9문장 내외로 짧은 특수성을 감안해 기사에 과정과 결과 뿐 아니라 원인 또는 전망이 제시된 경우를 심층성이 있는 기사로 코딩했다. 애벌코딩 결과 방송기사는 신문기사에 비해 그 길이가 짧아 원인과 전망이 동시에 기사에 반영된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발견해 기존에 신문분석에 사용된 코딩항목을 변형해 적용한 것이다. 코딩 방식은 분석력이 있는 경우는 1, 분석력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딩했다. 기사 말미에 ‘~할 전망이다’라고 표현한 경우라도 새로운 팩트(fact)가 담겨 있지 않은 경우는 분석력이 없는 것으로 코딩하였다. 예컨대 KBS에서 2월 6일 방송된 <이재용 상고심 ‘부정 청탁’ 놓고 원점 승부> 리포트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부정한 청탁인지를 두고 1심과 2심 재판에서 극과 극의 결론을 내린 만큼 상고심에서 어떠한 법리 공방이 이뤄질지 전망을 내놓았다. 이와 같이 앞으로의 법정 공방에 대한 ‘전망’을 내놓은 기사는 1로 코딩하였다. 다음은 해당 기사의 전망 부분에 대한 요약이다.

“사실관계보다 법리를 주로 따져보는 상고심에서도 부정한 청탁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점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 판결 등에서 보강 논리를 찾고 있습니다...반면 삼성 측은 2심에서 통한 청탁과 현안의 존재 등을 모두 부인하는 전략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삼성이 말 소유권을 최순실 씨에게 넘겼는지, 독일에 있는 최 씨 회사로 돈을 보낸 것이 재산 도피에 해당하는지도 상고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쟁점 별로 다툼의 소지가 많은데다 1·2심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할 가능성이 큼니다.”

반면 기사가 “~할 전망입니다.”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리포트 말미에 작성한 경우라도 새로운 팩트(fact)가 없는 경우는 분석력이 없는 기사로 코딩했다. 예컨대 6월 16일 보도된 <우체국, 오늘부터 이틀간 ‘라돈 침대’ 수거...불안 여진> 리포트에서 기자의 클로징 멘트는 다음과 같다.

“내일(17일)까지 수거를 해도 라돈 침대 사용자들의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기자멘트는 앞으로의 라돈 침대 이슈에 대한 전망이라기보다는 방송기사 작법상의 관행적인 표현의 일환으로 “보인다”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볼 수 있어 분석력있는 기사로 코딩하지 않았다.

② 박재영 등(2016)의 분석틀을 변용해 취재 경로와 기사 분석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사 유형으로 나눠 분석했다.

1. 이벤트기사: 선행연구(Boorstin, 1961)에서 규정하는 인터뷰나 보도자료, 기자간담회와 같은 의사사건(pseudo-event)과 사건, 사고처럼 자생적으로 발생한 진짜 사건(genuine-event)의 과정과 결과만을 보도한 경우를 말한다.
2. 해설기사: 최근 발생한 사안의 의미, 원인,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보도한 경우이다. 예컨대 3월 7일 방송된 KBS <김정은, 왜 판문점 택했나?...회담 시기 '4월 말' 정한 이유> 리포트처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이 열린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리포트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기획기사: 시의성은 좀 떨어지나 사회의 문제점 등을 고발하기 위해 사안의 배경이나 원인 파악, 문제점 진단, 쟁점 정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를 뜻한다.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이슈를 선정해 주도적으로 기획한 기사들이다. 예컨대 3월 7일 방송된 KBS의 <사용법 모르는데 천만 원...학교 방송 장비에 예산 '핑핑'> 리포트처럼 보도자료나 최근 관련 사업과 연관된 정부 단속 발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입수한 자료를 통해 디지털 전환 사업 과정에서의 학교 예산 낭비를 고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4. 기타: 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기타로 코딩했다.

(3) 코더 간 신뢰도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현직 방송기자와 방송기자와 신문기자 경험이 있는 전직 기자가 내용 분석 코딩에 참가했다. 코더 간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기사 가운데 약 10%를 무작위로 추출해 코딩을 실시한 뒤 크리펜도르프 알파 값을 산출했다. 그 결과 리포트 길이 1.0, 사운드바이트 개수 1.0, 기사제시방식 1.0, 뉴스 주제 .87, 기사 갈등성 .79, 이해당사자 수 .76, 관점유형 1.0, 기사 분석력 .86, 기사유형(이벤트성기사, 해설기사, 기획기사) .78, 투명취재원 .99, 익명취재원 .92, 취재원 수 .85의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신뢰도가 나왔다.

4. 분석결과

연구진은 우선 영국 BBC뉴스와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 공영방송 TV뉴스만이 가지고 있는 한국형 방송뉴스의 형식적 도식과 내용적 도식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분석했다(연구문제1).

1) 뉴스의 형식적 도식

(1) 리포트 길이 및 다양성

두 방송사의 리포트 평균 길이는 큰 차이가 났다. KBS는 리포트 1개당 평균 127초로 2분을 조금 넘는 반면 BBC는 리포트 1개당 평균 209초로 3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리포트의 평균 길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t = -9.19, p < .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두 방송사 리포트 길이의 표준편차이다. KBS 리포트 길이의 표준편차는 41.45로 BBC(127.48)보다 훨씬 작았다. 분석 대상 리포트 가운데 KBS의 경우 가장 긴 리포트는 445초, 가장 짧은 리포트는 84초였다. 반면 BBC는 가장 긴 리포트는 742초, 가장 짧은 리포트는 80초로 개별 리포트 간의 길이의 다양성도 BBC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뉴스에 방송되는 개별 리포트 길이의 융통성이 KBS가 BBC보다 작아서 뉴스의 주제나 중요도, 심층성과는 상관없이 비슷한 길이의 리포트만 방송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분석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봤을 때 KBS 리포트 길이는 다소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분석결과 75초 내외(이준웅·황유리, 2004)였던 KBS 리포트 평균 길이는 2005년 96초(손영준·최영재, 2005), 2009년 99초로(반현·홍원식, 2009) 길이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BBC 보도와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짧고 또 획일화된 한국형 방송뉴스의 형식적 도식이 확인됐다.

Table 4. Average Length and SD of Reports

(단위: 초)

	평균	표준편차
KBS	127.65	41.45
BBC	209.25	127.48

$t = -9.19, p < .001$

(2) 사운드바이트 개수

KBS와 BBC 리포트에 사용된 사운드바이트 개수를 비교해본 결과 KBS는 리포트 1개에 평균 2.1개의 사운드바이트를, BBC는 리포트 1개에 평균 2.85개의 사운드바이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방송사의 리포트에 등장하는 사운드바이트 개수에 대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t = -3.58, p < .001$)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 방송 뉴스가 기자리포팅 7문장에 인터뷰 2개로 이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이준웅·황유리, 2004)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리포트에 인터뷰 2개를 사용하는 한국형 방송뉴스 도식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리포트에 사용되는 인터뷰 개수에 대한 표준편차 역시 KBS(1.41)가 BBC(2.13)보다 작아 KBS의 경우 각 리포트에 사용되는 인터뷰 개수가 BBC에 비해 더 고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Number of Sound Bites and SD of a Report

(단위: 개)

	평균	표준편차
KBS	2.1	1.41
BBC	2.85	2.13

$t = -3.58, p < .001$

(3) 기사제시방식

다음으로 각 방송사별로 어떠한 기사제시방식으로 기사를 방송하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KBS는 전체 기사의 91.3%(231개)가 사전제작 리포트로, 리포트 형식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BBC는 기자가 사전제작한 리포트 기사가 70.7%(53개)로 KBS보다 비중이 낮았다. 또한 기자 출연이나 생중계가 14.7%(11개), 리포트와 기자 출연이나 생중계가 혼합된 형식이 14.7%(11개)인 것으로 분석돼 결과적으로 BBC가 KBS보다 뉴스에 방송되는 기사제시방식이 좀 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국내 지상파 방송뉴스가 앵커멘트와 기자 사전제작 리포팅의 형식적 도식(이준웅·황유리, 2004)을 고수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방송사에 따라 뉴스 포맷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 = 30.72, p < .001$).

Table 6. Format of News Reports

(단위: 건 %)

	사전제작 리포트	기자출연·생중계	사전제작 리포트+기자출연·생중계	계
KBS	231 (91.3)	19 (7.5)	3 (1.2)	253(100)
BBC	53 (70.7)	11 (14.7)	11 (14.7)	75(100)

 $\chi^2(2) = 30.72, p < .001$

2) 뉴스의 내용적 도식

방송사별 뉴스주제 분포도 눈에 띄게 달랐다. KBS는 사회뉴스와 정치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해 사회뉴스와 정치뉴스가 전체 뉴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전체 뉴스의 41.9%(106건), 32%(81건)를 차지했다. BBC는 사회뉴스 비중이 36%(27건)로 높았지만 국제뉴스 역시 30.7%(23건)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형 방송뉴스에 국내 정치와 범죄, 사건, 사고에 주목하는 내용적 도식이 존재한다(이준웅·황유리, 2004)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지난 2009년 분석(반현·홍원식, 2009)에서는 KBS, MBC, SBS 뉴스에서의 사회뉴스 비율이 전체 기사의 34.9%였는데 이번 분석결과 사회뉴스의 비중은 과거보다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송사별로 보도하는 뉴스주제에 차이가 나는지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5) = 31.2, p < .001$).

Table 7. Topic of News Reports

(단위: 건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기타	계
KBS	81 (32)	34 (13.4)	106(41.9)	6 (2.4)	24 (9.5)	2 (0.8)	253(100)
BBC	8 (10.7)	13 (17.3)	27 (36)	4 (5.3)	23 (30.7)	0 (0)	75 (100)

 $\chi^2(5) = 31.2, p < .00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BS뉴스에서는 평균 127초 리포트에 사운드바이트 2개를 사용하고 리포트 형식의 비중이 높은(91%) 형식적 도식이 발견됐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해 온 한국형 방송뉴스 도식(강명현, 2016; 반현·홍원식, 2009; 이준웅·황유리, 2004; 최영재·남재일, 2013; 한수연·윤석민, 2016)에 비해 리포트 길이가 27초 가량 증가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큰 틀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뉴스 주제로는 사회뉴스(41.9%)와 정치뉴스(32%)의 비중이 높아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한국형 방송뉴스의 내용적 도식(강명현, 2016; 이준웅·황유리, 2004)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뉴스 심층성

연구진은 한국과 영국 공영방송 TV뉴스의 뉴스 심층성을 비교분석(연구문제2)하는데 있어 심층성을 객관성과 다양성, 전문성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1) 객관성

이 연구에서는 전체 취재원의 수와 투명취재원의 수에 바탕해 방송뉴스 심층성의 객관성을 측정했다. 전체 취재원의 수는 인물과 단체, 문서, 사물을 포함한 취재원의 숫자를 말한다. 투명취재원과 익명취재원은 인물취재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각 방송사의 전체 취재원 수(인물, 단체, 사물 포함)와 투명취재원 수(인물), 익명취재원 수(인물)는 리포트 당 평균 개수로 비교했다.

먼저 단체와 사람 뿐 아니라 문서 등 사물을 포함한 전체 취재원 숫자의 경우 두 방송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KBS는 리포트 1건당 평균 3.36개의 취재원이 등장했고 BBC는 3.91개의 취재원이 등장해 BBC가 근소한 차이로 더 많았다. 이 같은 수치는 선행 연구와 비교해볼 때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05년에는 한국 방송뉴스에서 평균 2.5개의 취재원이 등장한 것으로 분석됐고(손영준·최영재, 2005) 지난 2009년에는 2.45개의 취재원이 활용된 것으로 분석됐다(반현·홍원식, 2009).

차이가 나는 점은 투명 취재원 수이다. KBS의 경우 하나의 리포트에 평균 1.66명의 투명 취재원이 등장한데 비해 BBC는 2.75명의 투명취재원이 등장해 BBC가 직접 인용을 통해 더 많은 취재원의 이야기를 리포트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에 따른 투명취재원 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t = -5.64, p < .001$). 기사에서의 투명취재원 사용은 기사의 사실성과 연결돼 기사가 더 심층적이라는 인상을 시청자에게 줄 수 있다.

반면 기사의 심층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익명취재원 사용의 경우에는 KBS가 더 높은 빈도를 보였다. KBS는 리포트 1개당 평균 .49명의 익명취재원을 사용해 BBC(.20명)보다 그 빈도가 더 높았으며 이 같은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t = 2.72, p < .01$).

Table 8. Number of Sources, Transparent Sources, and Anonymous Sources in a Report (단위: 명)

	KBS	BBC
전체 취재원 수	3.36	3.91
투명취재원 수	1.66	2.75
익명취재원 수	.49	.20

투명취재원: $t = -5.64, p < .001$

익명취재원: $t = 2.72, p < .01$

(2) 다양성

이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리포트 가운데 갈등성이 있는 기사를 대상으로 기사의 이해당사자 수와 관점유형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기사의 다양성을 측정했다. 그 결과 KBS는 갈등성 있는 기사가 전체 기사 253개 가운데 33개, BBC는 75개 리포트 가운데 18개인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방송사에 따라 이해당사자 수에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갈등성 리포트에 평균 2.21개의 이해당사자가 나타났고 BBC는 리포트 1개당 2.33개의 이해당사자가 나타나 BBC가 근소한 차이로 더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같은 수치는 신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박재영·안수찬·박성호, 2014)보다 적은 수치로 대선시기 기사에 등장한 이해당사자 수를 분석한 이 연구에서는 이해당사자 수가 3.4개에서 3.5개로 분석됐다.

Table 9. Number of Interested Parties in a Report.

(단위: 개)

	이해당사자 수	표준편차
KBS	2.21	.60
BBC	2.33	.69

다음으로 갈등성 기사에 등장하는 관점이 단일관점인지, 대체로 단일관점인지, 복합관점인지 분석했다. 그 결과 방송사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사에서 단일관점으로 보도한 경우는 KBS 9%, BBC 11%로 두 방송사 모두 그 비중이 매우 낮았다. 이해 당사자의 입장이 가장 다양하게 반영된 복합관점 기사는 KBS 57.6%로 BBC(27.8%)보다 많아서 KBS 보도가 갈등상황에서 기계적 균형을 더 잘 맞춘다고 볼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해외신문과 국내 신문을 비교 분석한 선행연구(박재영·이나연, 2018; 이건호·정완규, 2009)에서 해외신문의 복합관점 비율이 더 높다고 나온 분석결과와 배치되는 것으로 KBS의 경우 기계적 균형에 있어서는 BBC보다 더 앞선다고 볼 수 있다.

Table 10. Type of Viewpoint in News Reports

(단위: 건 %)

	단일관점	대체로 단일관점	복합관점	계
KBS	3 (9.1)	11 (33.3)	19 (57.6)	33 (100)
BBC	2 (11.1)	11 (61.1)	5 (27.8)	18 (100)

(3) 전문성

이 연구에서는 기사의 분석력과 정보 채널로 나눈 기사유형으로 기사 전문성을 측정하였다. 먼저 분석력의 경우 보도하는 사안의 과정과 결과 뿐 아니라 원인이나 배경, 전망이 기술된 경우를 분석력이 높은 기사로 봤다. 그 결과 KBS와 BBC는 기사분석력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 = 8.81, p = .003$). KBS는 사안의 과정과 결과만 기사에 나타난 경우가 73.9%(18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사 분석력이 있는 경우는 26.1%(66건)에 그쳤다. 반면 BBC는 기사 분석력이 있는 경우가 44%(33건)로 KBS보다 그 비중이 높았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과거 선행연구(이준웅·황유리, 2004)가 이뤄졌던 당시보다 한국 방송기사의 기사 심층성이 더 떨어졌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지난 2003년 분석 결과(이준웅·황유리, 2004)에서는 분석대상 한국 방송 뉴스 아이템 가운데 과정과 결과만을 제시한 단순한 기사가 52%를 차지했는데 이 비율이 같은 분석틀로 분석한 이번 분석결과에서는 73.9%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Analytic Power of News Reports

(단위: 건 %)

	기사분석력 없음	기사분석력 있음	계
KBS	187 (73.9)	66 (26.1)	253 (100)
BBC	42 (56)	33 (44)	75 (100)

$\chi^2(1) = 8.81, p < .01$

연구진은 전문성을 측정하기 위한 두 번째 척도로 정보채널 유형과 분석력을 토대로 기사 유형을 분류했다. 전체 기사를 이벤트성기사와 해설기사, 그리고 기획기사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KBS에 비해 BBC가 해설기사와 기획기사의 비중이 더 높았고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2) = 15.18, p = .001$).

선행연구에서는 한국형 방송뉴스가 보도자료나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 심층적 접근이 제한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준웅·황유리, 2004). 분석 결과 KBS는 사건, 사고나 보도자료, 정치인들의 발언 등 발생한 현안을 보도하는 이벤트성기사를 보도하는 비율이 66.4%(168건)로 BBC 44%(33건)보다 높았다. 최근 현안에 대해 기자가 전망이나 해석을 내놓는 해설 기사의 경우에는 두 방송사의 비중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가 난 부분은 심층기사이다. BBC는 자체 기획에 의한 심층기사의 비율이 22.7%(17건)였지만 KBS는 9.1%(23건)에 그쳤다.

Table 12. Reporting Method of News

(단위: 건, %)

	이벤트성기사	해설기사	심층기사	계
KBS	168 (66.4%)	62 (24.5)	23 (9.1)	253 (100)
BBC	33 (44)	25 (33.3)	17 (22.7)	75 (100)

$$\chi^2(2) = 15.18, p < .01$$

종합하자면 기사 심층성(연구문제2)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심층성의 객관성과 전문성은 BBC 뉴스가 KBS 뉴스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심층성의 다양성에서 이해당사자 수는 BBC가 더 많았고 복합관점 보도비율은 KBS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느 방송사가 더 다양성이 높다고 결론 내릴 수 없었다. 따라서 기사의 심층성은 객관성과 전문성 모두에서 앞선 BBC가 더 높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4) 뉴스 도식과 심층성

연구진은 한국과 영국 공영방송 TV뉴스의 형식적, 내용적 도식과 뉴스 심층성의 관계(연구문제 3)를 통계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형식적 도식 요소로는 기사제시방식을, 내용적 도식 요소로는 뉴스주제를 선정했고 이 두 요인이 뉴스 심층성 가운데 특히 전문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해보았다. 전문성은 분석력 수준과 기사유형으로 나눠 분석했다. 연구 결과 리포트 길이와 사운드바이트 개수, 취재원 수와 같은 다른 도식적 요인 또한 발견됐지만 뉴스 시간이 길어지면 취재원 수도 증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관계는 특별히 알아보지 않기로 했다. 대신 직관적 추론이 가능하지 않은 형식적, 내용적 도식과 심층성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분석대상인 KBS 뉴스는 공영방송 뉴스로 건전한 비판의식을 지닌 시민을 길러낼 책무를 지니고 있고 시민들의 의견의 질은 의견을 뒷받침하는 정보의 양에 좌우되기 때문에 (Druckman, 2014; Price & Neijens, 1997). 기사 분석력을 포함하는 정보성은 심층성의 요소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KBS 뉴스에서 기사제시방식에 따라 기사 분석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사전제작 리포트 유형에서의 분석력 있는 기사 비율은 23.8%에 불과했다. 반면 기자 출연이나 생중계에서는 47.4%(9건)의 기사가 분석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전제작 기사 리포트와 기자 출연 또는 생중계가 결합된 형식에서는 66.7%(2건)에서 사안의 원인이나 전망 등 분석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제시방식에 따른 기사 분석력에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2) = 7.65, p = .022$). KBS의 경우 전체 기사 유형 가운데 90%가 사전제작 리포트 유형이라는 결과를 감안해 보면 리포트 형식에 집중된

뉴스 형식이 KBS 뉴스의 전반적인 심층성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 있었다. BBC 역시 기사제시 방식에 따라 기사분석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chi^2(2) = 11.17, p = .004$) 나타났다. 기사분석력이 가장 높은 기사 유형은 기자 출연 또는 생중계로 이 형식의 기사는 전체의 81.8%(9건)에서 분석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리포트와 기자 출연 또는 기자 생중계가 혼합된 형태의 기사에서 역시 분석력이 있는 경우가 63.6%(7건)로 비중이 높았다. BBC의 경우에도 사전제작 리포트 형태의 기사에서 분석력이 가장 떨어졌다.

Table 13. Analytic Power of News Reports by News Format

(단위: 건 %)

		분석력 없음	분석력 있음	계
KBS	사전제작 리포트	176 (76.2)	55 (23.8)	231 (100)
	기자출연·생중계	10 (52.6)	9 (47.4)	19 (100)
	사전제작 리포트+기자출연·생중계	1 (33.3)	2 (66.7)	3 (100)
BBC	사전제작 리포트	36 (67.9)	17 (32.1)	53 (100)
	기자출연·생중계	2 (18.2)	9 (81.8)	11 (100)
	사전제작 리포트+기자출연·생중계	4 (36.4)	7 (63.6)	11 (100)

KBS: $\chi^2(2) = 7.65, p < .05$

BBC: $\chi^2(2) = 11.17, p < .01$

다음으로 기사 제시 방식의 도식화에 따라 기사유형(이벤트성기사, 해설기사, 기획기사)에 차이가 나는지 분석했다. KBS의 경우 사전제작 리포트 기사의 69.3%는 이벤트성기사로 사건, 사고나 기자회견, 기자간담회처럼 심층성이 가장 낮은 기사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 출연이나 생중계에서는 이벤트성기사(42.1%)와 현안에 대해 원인과 전망을 전달하는 해설기사(52.6%)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리포트와 기자출연 또는 생중계가 결합된 기사 3건은 모두 심층성이 가장 높은 기획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제시방식에 따라 기사 유형에 차이가 나는지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KBS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chi^2(4) = 38.98, p < .001$).

BBC의 경우에도 기사제시방식에 따라 기사유형에 차이가 있었다($\chi^2(4) = 18.58, p = .001$). 리포트와 기자출연이나 생중계가 혼합된 형태의 뉴스 포맷에서 심층성 있는 해설기사가 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자 생중계나 기자 출연기사의 63% 역시 현안에 대해 심층 설명을 하는 해설기사였다. BBC의 경우에도 사전제작 리포트 기사 50%가 이벤트성기사로 심층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사전제작 리포트의 30%가 기획기사이기 때문에, BBC는 KBS보다 리포트 형식에서도 심층성이 더 높은 기사가 보도됐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에서 보다시피 선행연구에서 한국 방송뉴스의 심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됐던 사전제작 리포트 포맷의 기사가 실제로 분석력이 낮고 보도자료나 기자회견 등 발표자료에 의존하는 이벤트성 내용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한국형 방송뉴스의 형식적 도식은 낮은 뉴스 심층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같은 경향성은 KBS가 BBC보다 더 높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Table 14. News Format by Covering Method.

(단위: 건, %)

		이벤트성기사	해설기사	기획기사	계
KBS	사전제작 리포트	160 (69.3)	52 (22.5)	19 (8.2)	231 (100)
	기자출연·생중계	8 (42.1)	10 (52.6)	1 (5.3)	19 (100)
	사전제작 리포트+기자출연·생중계	0 (0)	0 (0)	3 (100)	3 (100)
BBC	사전제작 리포트	27 (50.9)	10 (18.9)	16 (30.2)	53 (100)
	기자출연·생중계	4 (36.4)	7 (63.6)	0 (0)	11 (100)
	사전제작 리포트+기자출연·생중계	2 (18.2)	8 (72.7)	1 (9.1)	11 (100)

KBS: $\chi^2(4) = 38.98, p < .001$ BBC: $\chi^2(4) = 18.58, p < .01$

선행연구(이준웅·황유리, 2004)는 이 같은 한국형 방송뉴스의 형식적 도식이 내용에도 영향을 미쳐 보도자료 등 수동적 뉴스 채널에 대한 의존을 높이고 범죄 등 부정적인 뉴스 가치에 의존하게 되며 사회, 정치뉴스의 비중이 높아지는 내용적 도식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뉴스의 형식적 도식이 내용적 도식을 초래하고 이러한 내용적 도식이 낮은 심층성을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내용적 도식으로 꼽히는 뉴스 주제가 뉴스 심층성과 관련이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KBS 뉴스는 사회와 정치뉴스 비중이 높은 내용적 도식이, BBC는 사회와 국제뉴스 비중이 높은 내용적 도식이 발견됐다. KBS 뉴스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회기사에서는 심층성 있는 기사의 비율이 17%에 그쳤다. 다음으로 정치기사에서 심층성이 있는 기사는 38.3%인 것으로 분석됐다. 뉴스 주제별로 기사분석력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5) = 14.54, p = .01$). 따라서 KBS는 사회기사 비중이 높은 내용적 도식이 뉴스의 낮은 심층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반면 BBC는 뉴스주제별로 기사분석력에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BC뉴스에서 기사 분석력이 가장 높은 주제는 경제 기사로 61%였고 그 다음은 정치기사(50%)였다. BBC는 KBS와는 달리 사회 분야의 기사 분석력도 44%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BBC는 뉴스 주제에 따라 기사 분석력에 차이가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다.

Table 15. Analytic Power of News Reports by News Topic (단위: 건, %)

		기사분석력 없음	기사분석력 있음	계
KBS	정치	50 (61.7)	31 (38.3)	81 (100)
	경제	23 (67.6)	11 (32.4)	34 (100)
	사회	88 (83)	18 (17)	106 (100)
	문화	4 (66.7)	2 (33.3)	6 (100)
	국제	21 (87.5)	3 (12.5)	24 (100)
	기타	1 (50)	1 (50)	2 (100)
BBC	정치	4 (50)	4 (50)	8 (100)
	경제	5 (38.5)	8 (61.5)	13 (100)
	사회	15 (55.6)	12 (44.4)	27 (100)
	문화	3 (75)	1 (25)	4 (100)
	국제	15 (65.2)	8 (34.8)	23 (100)

KBS: $\chi^2(5) = 14.54, p < .05$

이상의 분석에서 보다시피 사회뉴스 비중이 높은 한국형 방송뉴스의 내용적 도식은 뉴스의 낮은 심층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 사회뉴스에 분석력이 높은 기사가 많았다면 분석 결과가 달라졌겠지만 분석결과 사회뉴스는 대체로 분석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뉴스주제별로 기사유형(이벤트성기사, 해설기사, 기획기사)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와도 연결된다. KBS는 심층성이 가장 낮은 이벤트성 기사의 42%가 사회분야 기사였고 정치기사(29.8%)가 뒤를 이었다. 현안에 대한 해설 기사는 정치기사(43.5%)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심층성이 가장 높은 기획기사는 사회기사(56.5%)의 비중이 높았다. 이처럼 이벤트성 기사와 기획기사 모두 사회기사의 비중이 높았지만 전체 기사에서 기획기사가 차지하는 건수가 적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건수로 따져보면 사회주제의 이벤트성기사는 71건, 사회주제의 기획기사는 13건으로 사회분야에서 심층성이 가장 낮은 이벤트성 기사가 많이 다뤄진 것을 볼 수 있다. 뉴스 주제가 기사유형과 관련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10) = 20.8, p = .02$). 따라서 KBS의 경우 보도자료나 사건, 사고 의존도가 높은 사회기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뉴스 심층성 또한 떨어졌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반면 BBC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BBC는 이벤트성 기사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가 사회와 국제로 36.4%였고 해설기사와 기획기사 역시 사회 분야 비중이 가장 높았다. KBS와 BBC 모두 전체기사에서 사회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KBS의 경우 사회기사에서 심층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반면 BBC는 그렇지 않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BBC는 특정 주제의 기사가 심층성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통계적으로 분석됐으며 따라서 BBC는 뉴스의 내용적 도식이 심층성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다.

Table 16. Covering Method & News Topic

(단위: 건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기타	계
KBS	이벤트성기사	50 (29.8)	21 (12.5)	71 (42.3)	4 (2.4)	22 (13.1)	0 (0)	168 (100)
	해설기사	27 (43.5)	8 (12.9)	22 (35.5)	2 (3.2)	2 (3.2)	1 (1.6)	62 (100)
	기획기사	4 (17.4)	5 (21.7)	13 (56.5)	0 (0)	0 (0)	1 (4.3)	23 (100)
BBC	이벤트성기사	2 (6.1)	5 (15.2)	12 (36.4)	2 (6.1)	12 (36.4)	0 (0)	33 (100)
	해설기사	5 (20)	7 (28)	8 (32)	0 (0)	5 (20)	0 (0)	25 (100)
	기획기사	1 (5.9)	1 (5.9)	7 (41.2)	2 (11.8)	6 (35.3)	0 (0)	17 (100)

KBS: $\chi^2(10) = 20.8, p < .05$

요약하자면, 뉴스의 형식적 도식과 내용적 도식이 기사 심층성과 관련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연구문제3) 기사의 형식적 도식인 기사제시방식과 기사 심층성은 두 방송사 모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와 BBC 모두 리포트 형태의 기사에서 심층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용적 도식은 KBS에서만 기사 심층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분야의 비중이 높은 KBS 뉴스 편성이 낮은 심층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토론

분석결과 KBS뉴스는 선행연구(강명현, 2016; 이준웅·황유리, 2004; 최영재·남재일, 2013; 한수연·윤석민, 2016)에서 지적해 온 한국형 방송뉴스의 형식적, 내용적 도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으며, 이 같은 도식은 심층성을 저해하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KBS 뉴스에서는 리포트 형식 비중이 91%로 가장 높고 리포트 1개당 평균 길이가 127초로 2개 사운드바이트를 사용하는 형식적 도식이 나타났고 사회, 정치기사 비중이 높은 내용적 도식이 발견됐다. KBS 리포트 길이의 표준편차는 BBC보다 작아 리포트 종류와 심층보도 필요성에 상관없이 같은 길이의 리포트가 천편일률적으로 방송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심층성에서도 크게 차이가 났다. 전체 취재

원 수에서는 KBS와 BBC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지만 투명 취재원 수에서는 KBS(1.66명)와 BBC(2.75명)의 차이가 컸고 기사 분석력 역시 KBS가 BBC보다 떨어졌다. 이벤트성 기사 비율은 KBS가 BBC보다 높고 기획기사 비율은 KBS가 BBC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리포트 형식에 집중된 KBS의 형식적 도식과 사회기사 비중이 높은 내용적 도식은 기사 심층성 중 특히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소인 것으로 분석됐다.

뉴스를 구성하는 각 리포트는 중요도, 가치, 주제 등에 따른 차별적 길이 배분이 필요하다. 각 개별 아이템의 길고 짧음의 차이를 두면서 프로그램 안에서의 일종의 호흡을 만들 수 있으며 (Lang, Potter, & Grabe, 2003) 중요한 뉴스는 심층적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석결과 KBS의 짧은 보도 형식은 이슈에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매체 시대에 뉴스 심층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뉴스가 꼭 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중요도에 따라 길이가 다르게 편성될 필요는 있다. 영국과 미국의 뉴스는 그 중요도에 따라 특별히 중요한 기사는 심층 보도를 통해 긴 시간을 할애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기사는 단신으로 처리하기도 한다(이준웅·황유리, 2004; 최영재·남재일, 2013). KBS가 이 같은 짧은 리포트 형식을 고수하는 이유에 대해 1분 남짓한 리포트를 백화점식으로 편성하는 것이 시청률 확보에 좋고 주로 리포트를 담당하는 5년차 이하 기자들이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기사 형식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이준웅·황유리, 2004). 하지만 최근 공영방송 뉴스의 시청률 하락은 시청자들이 더 이상 이 같은 피상적 뉴스를 원치 않음을 방증한다. 연차 낮은 기자들이 제작하기 쉬운 포맷이라 고수한다는 분석 역시 제작자 위주의 낡은 관행 탓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결국 KBS뉴스가 심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의 도식 관행을 깨고 뉴스 가치에 대한 좀 더 과감한 판단을 통해 심층성 높은 뉴스에 더 긴 시간을 편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체 취재원 수에서는 KBS와 BBC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투명 취재원 수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KBS가 단체나 문서 등에 의존해 기사를 더 많이 보도하고 있는 반면 BBC는 취재원을 직접 만나 취재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직접 인용은 기사 신뢰도를 높이고 호소력 있게 만들며 기자가 합법적으로 정보를 얻었음을 증명해준다 (Izard, Culberston, & Lambert, 1990; Newson & Wollert, 1985).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 공영방송 뉴스에서 분석되는 취재원의 낮은 투명성이 어디에서 기인한 문제인지, 혹 한국 방송 기자들이 BBC 기자들에 비해 직접 취재보다는 발표자료에 의존한 기사를 쓰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심층성의 하위요소 중 KBS가 BBC보다 우위를 보였던 유일한 측면은 다양성의 '복합관점'으로 KBS가 BBC보다 이해당사자들의 관점을 동등하게 반영해 기계적 균형을 잘 맞

취운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상황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동등하게 반영하는 것은 꼭 필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러한 기계적 균형이 꼭 심층보도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KBS는 무색무취로 양적 균형은 맞춰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가’와 ‘정권’의 이해관계를 교묘하게 반영해 정권 편향적인 보도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이정훈·정준희, 2018). 따라서 다른 심층적 요소들이 결여된 채 이러한 기계적 균형만 맞추는 것은 형식적으로만 심층성의 모습을 떨 뿐 내용면에서는 심층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분석에서 낮게 평가된 객관성이나 전문성과 같은 다른 심층성의 요소들이 함께 갖춰질 때 KBS 보도에서 발견된 ‘복합관점’은 비로소 진정한 심층 보도의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분석결과 KBS의 ‘이벤트 기사’ 비중은 66%로 BBC에 비해(44%)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내 신문 분석 결과(안수찬·박성호, 2014)와 비슷한데, 해외의 경우 해석 보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Schudson, 1998) 국내 언론에서는 이벤트성 보도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벤트성 기사가 많다는 것은 기사가 능동적으로 기사를 취재하기 보다는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사건, 사고와 같이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수동적으로 취재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뉴스가 소설과 다른 점은 팩트(fact)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고 따라서 기사는 현실의 관찰자로 존재해야 한다. 기자가 보도자료와 기자회견과 같은 발표 기사에 의존하게 되면 정치인과 보도자료를 내는 주최자의 생각이 여과 없이 시청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취재관행은 지양돼야 한다(Tandoc, 2010). 이처럼 이벤트성 기사 비중이 높은 분석 결과는 그동안 대한민국 언론의 오랜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출입처 위주의 취재 관행과 연결된다. 국내 언론의 취재 활동이 소위 출입처로 불리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기자실을 주 무대로 이뤄지기 때문에(김동규·김경호, 2005) 출입처와 관련된 발표기사에 기자들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분석 결과에서도 이 같은 기자들의 수동적인 취재 태도는 여과 없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뉴스와 정치뉴스에 집중된 KBS 뉴스의 내용적 도식이 낮은 심층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BBC의 경우에는 뉴스 주제와 상관없이 정치뉴스와 사회뉴스에서도 KBS보다 높은 심층성이 발견됐다. 같은 정치뉴스와 사회뉴스를 보도하더라도 기자가 게이트키퍼로서 더 많이 관찰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품질이 높은 기사를 발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번 분석결과로만 보면 KBS 뉴스는 단순 사건, 사고나 정치인의 발언을 중심으로 한 뉴스 비중이 높아 BBC와는 달리 내용적 도식이 뉴스 심층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받아쓰기는 가장 게으른 형태의 취재방식으로 비판받아 왔다(정준희, 2019)’. 이번 분석결과만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성급한 면이 있지만 KBS가 BBC보다 그동안 한국언론의 고질적 병폐 중의 하

나로 지적돼온 ‘받아쓰기’에 충실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뉴스미디어가 충분한 증거와 다양한 논쟁을 제공해야 시민들이 더 다양한 아규먼트 레퍼토리(argument repertory)를 발전시킬 수 있다(Wurff, 2016). 하지만 분석결과, 공영방송 KBS는 BBC보다 심층성 떨어지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의 발달로 빠르고 방대한 뉴스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다른 매체와 차별성을 띠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역할이 요구된다. 기자들에게는 이제 단순히 현장에 가고 인터뷰를 하고 팩트(fact)를 체크하는 이상의 전문성과 판단, 통찰력있는 뉴스 해석 능력이 요구된다(Stephens, 2010). 분석결과 KBS 뉴스에서는 다변화된 미디어환경에서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질 높은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이 관찰됐다. 따라서 다매체시대에 KBS 뉴스 영향력이 줄어든 이유 가운데 일부는 한국형 뉴스도식을 고수하면서 심층성이 떨어지는 뉴스를 반복 생산해내는 관행에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그동안 현황분석에만 치중했던 방송뉴스의 형식적, 내용적 도식을 도식 그 자체가 아닌 심층성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국내 공영방송의 대표적인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보도 피상성의 원인이 일부는 뉴스 도식에서 비롯됐음을 처음으로 규명했다. 또한 그동안 과편화돼 이뤄졌던 심층성의 구조를 저널리즘 가치와 연결시켜 재정의해 심층성에 대한 논의를 일부 진전시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물론 분석대상이 1년에 걸쳐 방송된 2주치의 방송리포트로 한정돼 일부 교차분석의 경우에는 셀의 숫자가 5 이하여서 통계 적합성이 떨어지는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형 방송뉴스의 도식 현황과 도식과 심층성이 갖는 관련성에 대한 패턴을 발견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문화적, 사회적 배경이 다른 두 나라의 방송뉴스는 서로 다른 취재관행에 따라 제작되기 때문에 한국형 방송뉴스 도식이 반드시 나쁘다고 지적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정형화된 리포트 형식이 저널리즘의 본질적인 가치 가운데 하나인 심층성을 저해한다면 기존의 형식을 해체하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디지털 시대에 뉴스를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시청자들이 바라는 방송의 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 상품으로서의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 공영방송은 꼭 필요하고 오히려 그 역할은 더 커질 수 있다(Graham, 1997). 이번 분석결과는 2주치 방송만을 표집해 분석한 것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만 KBS 뉴스가 공영방송으로서 보다 질 높은 뉴스를 생산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뉴스 도식을 깨는 것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기에는 충분하다고 본다.

References

- Bantz, C. R., McCorkle, S., & Bade, R. (1980). The news factory. *Communication Research*, 7, 45-68.
- Barnhurst, K. G. & Mutz, D. (1997). American journalism and the decline in event-centered reporting. *Journal of Communication*, 47(4), 27-52.
- Ban, H., & Hong, W. (2009). A content analysis of Korean broadcasting news format: Focusing on the evening main news of KBS, MBC and SBS. *Studies of Broadcasting Culture*, 21(1), 9-38.
- Bardoel, J., & d'Haenens. (2004). Media meet the citizen: Beyond market mechanisms and government regulations.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19(2), 165-94.
- Blankenburg, W. B. (1992). The utility of anonymous attribution. *Newspaper Research Journal*, winter/spring, 10-23.
- Boorstin, D. (1961). *The image: A guide to pseudo-events in America*. New York: Harper.
- Brooks, B. S., Kennedy, G., Moen, D. R., & Rnly, D. (2002). *News reporting and writing*. New York: St. Martin's Press.
- Choi, J., & Lee, M. (2017). An analysis of news content consumption by news consumers in the new media ag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2), 207-218.
- Choi, Y. J. (2010). Broadcasting news of a crisis. *Broadcasting Journalist*, 1, 28-37.
- Choi, Y. J., & Nam, J. I. (2013). Comparing the six television news formats over the world: Routinization and evolving changes.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3(3), 661-692.
- Collins, R., Finn, A., McFadyen, S., & Hoskins, C. (2001). Public service broadcasting beyond 2000: Is there a future for public service broadcasting?. *Canadian Journal of Communication*, 26(1), 3-15.
- Druckman, J. N. (2014). Pathologies of studying public opinion, political communication, and democratic responsiveness. *Political Communication*, 31, 467-492.
- Fishman, M. (1980). *Manufacturing the news*. Austin, TX: University of Texas Pres.
- Fleming, K., & Thorson, E. (2008). Assessing the role of information-processing strategies in learning from local news media about sources of social capital.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11, 398-419.
- Gans, H. (1979). *Deciding what's news*. New York: Vintage Books.
- Goddard, P. (2017). 'Distinctiveness' and the BBC: A new battleground for public service television?. *Media, Culture & Society*, 39(7), 1089-1099.
- Graham, A., Davies, & Gavin. (1997). *Broadcasting, society and policy in the multimedia age*. Luton: John

Libbey Media.

- Hallin, D. C. (1992). The passing of the “high modernism” of American journalism. *Journal of Communication*, 42(3), 14-25.
- Han, J.-M., & Seol, J.-A. (2001). Tabloidization of prime-time television news in Korea.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15(3), 333-366.
- Han, S. Y., & Youn, S. M. (2016). Competition and changes in Korean broadcast journalism: Examinat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TV networks main news program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0(1), 169-210.
- Im, Y. H., & Lee, H. J. (2001). Use of information sources in a Korean daily newspaper: A content analysis of Dongailbo, 1949-1999.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1), 300-330.
- Izard, R. S., Culberston, H. M., & Lambert, D. A. (1990). *Fundamentals of news reporting*. Dubuque, Iowa: Kendall/Hunt Publishing.
- Jakubowicz, K. (2003). Bringing public service to account. In G. F. Lowe & T. Hujanen (Eds.), *Broadcasting and convergence: New articulations of the public service remit (147-167)*. Goteborg: Nordicom.
- Jung, J. H. (2019). The dilemma of quotation journalism. *Broadcasting Journalist*, 47, 12-14.
- Jung, P. M. (2013). A study on factors detrimental to the fairness of public broadcasting news: Focusing on KBS cases from the perspective of press control mechanism. a doctoral dissertation at Sungkyunkwan University's Graduate School.
- Jung, Y.-J. (2017). Searching for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JTBCs media public sphere.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1(4), 205-234.
- Kang, M.-H. (2016). A comparative study on the news characteristics between over-the-air broadcasters and general programming channels.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6(1), 5-36.
- Kepplinger, H., & Habermier, J. (1995). The impact of key events on the presentation of reality.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10(3), 371-390.
- Kim, D.-G., & Kim, K.-H. (2005). The Qualitative study about the news material collecting organization and habitual Practice of Korea newspapers.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5(2), 33-68.
- Kovach, B., & Rosenstiel, T. (2007). *The elements of journalism*. New York: Crown.
- Lang, A., Zhou, S., Schwartz, N., Bolls, P., & Potter, R. (2000). The effects of edits on arousal, attention, and memory for television message.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4(1), 94-109.
- Lee, G. H. (2008). Comparison of Korean and American newspapers' front pages : Analysis of credibility and

- originality of stories with relation to information depth,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2(5), 107-129.
- Lee, G. H., & Jung, W. K. (2009). Depth of news reporting and writing: Analysis of transparent sources, viewpoints, stakeholders in front page stories.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21, 5-48.
- Lee, J. H., & J, J. H. (2018). A Study on the restoration of the reliability of public broadcasting system. *Korean Association For Communication & Information Studies*, 3-14.
- Lee, N. Y. (2018). Scientific objectivity, formal objectivity, Korean formal objectivity- Comparative analysis of news sources and quotations used in Korean newspapers and New York Times and The Times of Lond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2(2), 112-142.
- Martin-Kratzer, R., & Thorson, E. (2007). Use of anonymous sources declines in US newspaper. *Newspaper Research Journal*, 28(2), 6-70.
- McQuail, D. (2010). *McQuail's mass communication theory*(5th ed). London: Sage.
- Merrill, J. (1997). *Journalism ethics: Philosophical foundations for news media*. New York: St. Martin's Press.
- Mutz, D. C., & Martin, P. S. (2001). Facilitating communication across lines of political difference: The role of mass medi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 97-114.
- Mencher, M. (1991). *News reporting and writing* (5th ed.). Dubuque, IA: Wm.e, Brown Publishers.
- Nam, J.-I., & Lee, G.-H. (2017). Korean journalists perception of good journalism.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7(2), 82-128.
- Newson, D., & Wollert, J. A. (1985). *Media writing: News for the mass media*.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 Park, I.-K. (2007). Korean public service broadcasting's social roles and its performance evaluation. *The Korean Journal of Humanities and the Social Sciences*, 31(12), 36-60.
- Park, J.-Y. (2006). A newspaper headline analysis for the development of a news evaluation index. *Korean News Media*,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 Park, J.-Y., & Ahn, S., & Park, S. (2014). The diachronic change of election report in the coverage of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since 1992. *Studies of Broadcasting Culture*, 26(2), 33-66.
- Park, J.-Y., & Lee, N. Y. (2018). The evaluation of Korean news article: Based on the source quality and the quality of information. *The quality of news article*,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81-155.
- Park, J.-Y., & Yoon, Y. (2016).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news evaluation index*.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 Park, S., & Yoon, Y. (2016). News quality of reporting on investigation and trial : A study on accuracy, depth, and impartiality of broadcasting new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0(4), 83-120.
- Park, S.-H. (2004).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social news*. Seoul: Media Research Center.
- Park, S.-O. (2018). The downfall of terrestrial news. *Sisa Journal*.
URL: <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77722>
- Price, V., & Neijens, P. (1997). Opinion quality in public opinion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9, 336-360.
- 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 (2008). *The state of the news media: An annual report on American journalism*. Available: www.journalism.org
- Rhee, J. W. (2005). Mediated intervisibility of the internet public sphere and the emergence of discursive publics. *Broadcasting Culture Research*, 17(2), 139-172.
- Rhee, J. W., & Hwang, Y. R. (2004). Thematic and formal characteristics of Korean broadcasting news: Finding the Korean Broadcasting news scheme,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18(3), 232-292.
- Rich, C. (1994). *Writing and reporting news: A coaching method*.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 Schudson, M. (1982). The politics of narrative form: The emergence of news conventions in print and television. *Daedalus*, 111(4), 97-112.
- Shim, J. C. (2003). A few thoughts on news values in an era of the digital media.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56, 33-60.
- Simon, T., Fico, F., & Lacy, S. (1989). Covering conflict and controversy: Measuring balance, fairness and defamation in local news, *Journalism Quarterly*, 66(2), 427-434.
- Spurk, C., Lopata, S., & Keel, G. (2010). Measuring the 'democratic' quality of radio news: Experiences from Leberia, *Journal of African Media Studies*, 2(2), 173-192.
- Stephens, M. (2010) The case for wisdom journalism—and for journalists surrendering the pursuit of news. *Daedalus*, 139(2), 76-88.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 Tandoc, E. C., & Skoric, M. M. (2010). The pseudo-events paradox: How pseudo-events flood the Philippine press and why journalists don't recognize it.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20(1), 33-50.

- van Dijk, T. (1988a). *News as discours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van Dijk, T. (1988b). *News analysis: Case studies of international and national news in the pres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Voakes, P. S., Kapfer, J. K., Kurpius, D. & Chern, D. S. (1996). Diversity in the news: A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framework.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3(3), 582-593.
- Wessler, H., & Rinke, E. M. (2014). Deliberative performance of television news in three types of democracy: Insights from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Russia. *Journal of Communication*, 64, 827-851.
- Wufff, R. V., Swert, K. D., & Lecheler, S. (2018). News quality and public opinion: The impact of deliberative quality of news media on citizens' argument repertoir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30(2), 233-256.
- Yoon, S. (2013, 9, 18). JTBC, The overwhelming No. 1 in the reliability impact survey. *Medias*.
URL: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644>

최초 투고일 2019년 6월 6일
게재 확정일 2019년 10월 8일
논문 수정일 2019년 10월 10일

부록

- 강명현 (2016). 지상파와 종편채널의 뉴스특성 비교연구. <언론과학연구>, 16권 1호, 5-36.
- 김동규·김경호 (2005). 국내 신문사 취재 조직체계와 관행에 대한 질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5권 2호, 33-68.
- 남재일·이강형 (2017). '좋은 저널리즘'의 구성 요소에 대한 기자 인식 변화 추이. <언론과학연구>, 17권 2호, 82-128.
- 박성의 (2018, 10, 2). '아! 옛날이여' 지상파 뉴스의 몰락. <시사저널>. Retrieved from <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77722>
- 박성희 (2004). <한국 사회면 비교분석>. 서울: 미디어연구소.
- 박인규 (2007). 한국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과 그 수행의 평가. <현상과인식>, 31권 12호, 36-60.
- 박재영 (2006). 뉴스 평가 지수 개발을 위한 신문면 머리기사 분석. <한국의 뉴스 미디어>. 서울: 한국언론재단.
- 박재영·이나연 (2018). 한국의 기사품질 평가의 내용: 취재원과 정보의 질을 중심으로. <기사의 품질>. 서울: 이화여대 출판문화원, 81-155.
- 박재영·안수찬·박성호 (2014). 대통령 선거 보도의 기사품질, 심층성, 공공성의 변화. <방송문화연구>, 26권 2호, 33-66.
- 박재영·이원수 (2010). 뉴스평가지수의 개발과 적용.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정주제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언론재단.
- 박성호·윤영민 (2016). 방송 범조뉴스의 품질연구. <한국방송학보>, 30권 4호, 83-120.
- 반현·홍원식 (2009). 국내 지상파 방송뉴스 포맷 연구. <방송문화연구>, 21권 1호, 9-3.
- 심재철 (2003). 디지털 미디어시대의 뉴스가치에 관한 소론. <방송통신연구>, 33-60.
- 윤수현 (2018, 9, 18). JTBC, 신뢰도 영향력 조사에서 압도적 1위. <미디어스>. Retrieved from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644>
- 이건호 (2008). 한미 신문 기사의 심층성과 신뢰도 및 독창성 분석 : 6개 한국 신문과 2개 미국 신문 1면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권 5호, 107-129.
- 이건호·정완규 (2009). 취재 영역 및 보도 형태별 뉴스 심층성 연구. <사회과학연구논총>, 21권, 5-48.
- 이나연 (2018). 과학적 객관주의, 형식적 객관주의, 한국형 형식적 객관주의. <한국언론학보>, 62권 2호, 112-142.

- 이정훈·정준희 (2018). 공영방송 저널리즘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고찰.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3-14.
- 이준웅·황유리 (2004). 한국형 방송 뉴스 도식의 발견. <한국방송학보>, 18권 3호, 232-292.
- 이준웅 (2005). 비판적 담론 공중의 등장과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 : 공정한 담론규범 형성을 위하여. <방송문화연구>, 17권 2호, 139-172.
- 임영호·이현주 (2001). 신문기사에 나타난 정보원의 권력 분포: 1949-1999년 <동아일보> 기사의 내용분석. <언론과학연구>, 1권 1호, 300-330.
- 정준희 (2019). '따옴표 저널리즘의 딜레마,' 관행이란 이름의 범속함, 그 악의 평범성. <방송기자>, 47, 12-14
- 정필모 (2012). <공영방송 보도의 공정성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영재 (2010). 위기의 방송뉴스...모두가 알면서 모두가 모른다. <방송기자>, 1, 28-37.
- 최영재·남재일 (2013). 텔레비전 뉴스 포맷의 국가간 비교 연구. <언론과학연구>, 13권 3호, 661-692.
- 최진봉·이미선 (2017). 뉴미디어 시대 뉴스 소비자들의 뉴스 콘텐츠 소비실태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7권 2호, 207-218.
- 한수연·윤석민 (2016). 종합편성채널 출범이 지상파 방송 뉴스에 미친 영향. <한국방송학보>, 30권 1호, 169-210.
- 한진만·설진아 (2001). 텔레비전 뉴스의 연성화에 관한 연구: KBS1, MBC, SBS의 주 시청 시간대 뉴스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5권 3호, 333-366.

한국 공영방송 TV 뉴스의 형식적, 내용적 도식에 따른 심층성 분석 KBS <9시뉴스>와 BBC <10시뉴스>의 비교를 중심으로

오해정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박사과정, MBC 기자)

최지향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조교수)

이 연구에서는 시청자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 뉴스의 영향력 감소 원인이 유사한 방송뉴스를 반복 생산하는 뉴스도식에 있다고 보고 뉴스도식과 심층성의 관계를 알아봤다. 이를 위해 한국과 영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KBS와 BBC의 메인뉴스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했다. 연구 결과 선행연구에서 지적해온 ‘한국형 방송뉴스의 도식’은 최근에도 계속돼, KBS 뉴스에서는 BBC보다 짧은 127초 길이의 뉴스에, 2개의 사운드바이트를 사용하고, 리포트 의존도가 높은(91%) 형식적 도식이 발견됐다. 내용적으로는 사회기사(41.9%)와 정치기사(32%)의 비중이 높은 내용적 도식을 찾아볼 수 있었다. 연구진이 심층성을 객관성, 다양성, 전문성으로 이뤄진 다층적인 개념으로 보고 분석한 결과, KBS 뉴스는 BBC 뉴스보다 객관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본 연구진은 뉴스 도식이 심층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알아봤는데, 한국형 도식의 기사는 이벤트성 기사의 비중이 높고 분석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연구진은 한국 방송뉴스에 만연한 정형화된 리포트 형식이 저널리즘의 주요한 본질적 가치 중 하나인 심층성, 그 중 특히 기사의 전문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짓고, 공영방송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의 제작 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핵심어: 공영방송, 방송뉴스, 뉴스 도식, 심층성, 제작 관행